

보도시점 (인터넷) 2024. 1. 21.(일) 11:00  
(지면) 2024. 1. 22.(월) 조간

배포 2024. 1. 19.(금) 오후

## 우리 수산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설 맞이 원산지 표시 등 특별점검

- 1. 22.(월)~2. 8.(목)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점검

해양수산부(장관 강도형)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1월 22일(월)부터 2월 8일(목)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.

특별점검 대상은 수산물 제조·수입·판매업체, 음식점, 전통시장, 통신판매업체 등이며, 이들이 취급하는 수산물 중 명절 제수용·선물용으로 인기 많은 명태, 홍어, 조기 등과 겨울철 별미로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방어, 가리비, 쫄치(과메기) 등의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.

\*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부과,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 이상~1,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아울러, 최근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활방어, 냉동조기, 냉장갈치 등의 수입 유통이력도 함께 점검하여 장기 미신고(180일 이상), 거짓신고, 사업 유형의 적정여부 등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.

이번 특별점검은 (사)소비자교육중앙회 등 소비자 단체와 수협 등 생산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명예감시원과 정부 점검반(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, 지방자치단체, 해경 등)이 함께 진행한다. 특히 명예감시원들은 점검반과 함께 다니며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꼼꼼하게 원산지 표시 여부를 점검하고, 원산지 표시 의무 준수를 위한 홍보활동도 할 예정이다.

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“민족 대명절인 설날을 맞아 제수용 등 인기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 등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할 것”이라며, “국민들께서 우리 수산물을 믿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명절 이후에도 원산지표시 및 수입유통이력 신고의무 준수여부 등을 상시 조사·관찰(모니터링)하며 안전한 수산물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.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 < 총괄 >	어촌양식정책관 수산물안전관리과	책임자	과 장	박승준 (044-200-5940)
		담당자	사무관	홍성현 (044-200-5414)
담당 부서	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	책임자	과 장	강거영 (051-400-5750)
		담당자	사무관	백승록 (051-200-5770)

## □ 점검배경

- 설을 맞아,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수산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원산지 표시 및 수입유통이력 특별점검 실시

## □ 점검내용

- (주요 점검품목) 설 특수를 고려, 수입량 또는 소비량 증가가 예상\*되거나 위반 개연성\*\*이 높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

\* 제수용, 선물용 등으로 설 명절 때 수요가 늘어나는 품목

\*\* 유통단계가 복잡하여 미신고 및 거짓신고, 장부미기록 등 위반 우려 큰 품목

- (점검기간) '24. 1. 22. ~ 2. 8.(3주간)
- (세부추진 방안) 수품원 공무원·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전통시장 등 수산물 유통현장 방문·점검

	원산지 점검	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점검
주요 점검품목	· (제수용) 명태, 홍어, 조기 등 · (선물용) 갈치, 전복, 옥돔 등 · (소비증가) 가리비, 방어, 과메기 등	· 냉동조기, 냉장갈치, 활뱀장어, 활방어
점검대상	· 점검품목 취급 음식점, 통신판매업체, 전통시장 등	· 수입 유통이력 신고 대상업체
점검내용	· 업체 별 원산지 표시의 적정 여부	· 장기미신고(180일 이상), 거짓신고, 업체유형의 적정 여부
점검반 편성	· 자체 점검반(공무원, 명예감시원)	· 조사공무원 및 지도조사원

## □ 향후 계획

- 원산지표시·수입유통이력 신고의무 준수 등 상시 모니터링(연중)

## 참고2

##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·단속 사진



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·단속 사진1



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·단속 사진2